

여수 통합현충탑 이순신공원에 조성

보훈단체 등 의견 수렴 부지 선정...2024년 준공 예정 통합현충탑 필요성 의회 등 설득해 사업 차질없이 추진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군 '3려 통합' 이후에도 여수와 여천 두 곳으로 나뉘어 있던 현충탑이 통합돼 이순신공원에 새로 들어선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통합현충탑 건립 공유재산 취득 안을 의결했다.

시는 사유지인 웅천동 이순신공원 내 4500㎡ 부지에 상징탑, 참배공간, 위패 봉안 공간, 관리시설, 휴식 시설, 주차장, 화장실, 공원,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면 예산을 확보해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여수 현충탑은 현재 자산공원(중화동)과 선원공원(선원동) 두 곳에 있으며 분산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노후화, 상징성 미흡 등으로 통합현충탑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는 지난해 보훈 단체장들의 건의를 받아 이순신공원에 통합현충탑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부지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시는 올해 통합현충탑 건립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면서 사업을 재추진했다.

접근성,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해 이순신공원, GS 예술마루, 여천고등학교 등 3곳을 후보지로 검토해왔다.

보훈단체 의견, 접근성, 기반시설 확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이순신공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보훈·안보단체와 유가족,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계획과 부지를 결정했다"며 "통합현충탑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 등을 설득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지리산·섬진강을 치유 자원으로 활용"

'지리산과 하나되기' 강승호 대표 구례 첫 '치유농업사' 합격

구례 '지리산과 하나되기' 강승호(사진) 대표가 지역에서는 1호로 국가공인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치유농업사란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등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14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농촌진흥청이 시행하는 시험에 최종 합격해야 한다.

강승호 대표는 "지리산과 섬진강에 산수유, 야생화 등 다양한 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면서 "이를 활용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의 자연친화적인 삶과 건강,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근규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치유농업사 배출을 통해 구례가 보유한 정정자원을 바탕으로 치유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청정해역 고흥산 햇물김 맛보세요

'안전조업·생김풍작' 기원 위판장 개장...120kg 10만9000원~15만7000원 거래

남해안 다도해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2023년산 물김이 본격적으로 출하에 들어갔다.

고흥군은 지난 19일 도화면 발포위판장에서 안전 조업과 생김 풍작 기원을 위한 2023년산 물김 위판장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출하를 시작했다

올해 물김 채매 초기 영양염 및 강우량이 부족해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평년 대비 2주 정도 분망과 채취가 지연됐다.

하지만 11월 하순부터 김의 성장과 색상이 점차 양호해져서 올해 물김 생산량도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흥김은 올해 1만211ha에 총 10만2110척이 시설됐으며, 물김 가격은 1포대(120kg)당 최저 10만9000원에서 최고 15만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위판장 개장식을 찾아 김 양식 어업인을 격려하며 올해도 작년과 같은 대풍이 이어지길 기원했다.

공 군수는 "고흥산 김은 전국 김밥용 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우수한 품질, 특유의 향과 맛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며 "고품질 생김이 많이 생산돼 우리 어업인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장식은 대한민국김밥포럼 의장이며, 고흥군



출하된 고흥물김 위판.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김락훈 셰프도 참석했다.

김 셰프는 "김밥의 세계화, 고흥김의 세계화를 추진하며 고흥김을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고흥군은 명품 고흥김 생산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철저한 병해 예방 및 김 양식 시설 관리 등을 위해 행정지도도 지속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여수신북항 내년 1월 시범 운영

급유선 등 역무선 투입, 효율적 부두 이용 여부 타진 여수해수청, 실제 선박접안시 불편사항 등 미리 확인

여수시 신항을 대체해 건립 중인 신북항의 준공을 앞두고 내년 1월 역무선을 투입한 시범 운영이 실시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 말 준공에 대비한 '여수신북항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역무선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역무선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급유, 선원 승하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 항만 운영을 위한 필수요소다.

시범 운영은 여수신북항 내 유조선과 도선선 등이 이용할 방파제 접안구간(780m), 통선과 급유선 등이 이용할 부잔교 3개소(560m)에서 역무선이 활동한다.

여수해수청은 대상 시설에 선박의 용도·크기별로 접안구간을 지정하고, 3중 접안으로 운영하면서 항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역무선 척수를 확인할 예정이다.



내년 말 준공예정인 여수 신북항. <여수해수청 제공>

또 기상 악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 내 안전사고와 실제 선박 이용 시 발생하는 불편 사항 등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정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여수신북항 개장에 앞서 시범운영을 실시하면 최대한 많은 선박이 항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도시 광양"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광양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2023~2027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전국 40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이중 2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역량 강화, 돌봄·안전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시는 지난 9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면 심사와 성과 발표 등 평가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2017년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을 시작으로 5년간(2018~2022년)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40% 이상)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

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 활동 강화 등이 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시는 기존 사업을 보완·확대해 ▲성평등정책 협력체계와 민관 거버넌스 강화 ▲마을단위 돌봄망 구축 ▲범죄예방 환경 구축과 아동·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확대 ▲여성 직업훈련과 취업교육 지원 등을 추진해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도시 광양을 만들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광양시가 추진하는 정책 전반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친화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보성군, 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기관' 주민 '복지기동대' 등 복지600 실현 민관 협력 높은 점수

보성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2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지역복지사업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인프라 구축,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등 지자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보성군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인프라 구축과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시행, 복지전달체계 개선 노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성600'사업의 확장판인 복지600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업무를 추진한 점과 주민들이 직접 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복지기동대'를 활성화해 통해 촘촘한 민관협력 사회 안정망 구축 등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어려운 상황에도 군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2023순천정원박람회 이모티콘 무료 배포

22일부터 선착순 4만명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 100일을 남겨두고 22일 오후 2시부터 순천시 캐릭터 '루미오·통리엣' 이모티콘을 무료 배포한다.

무료배포는 카카오톡 '순천시청'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이모티콘 '루미오·통리엣'은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펼쳐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속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다.

동천을 가로지르는 '정원드림호'와 정원의 별을 보며 하루를 머무는 가든스테이, 맨발로 걷는 것만으로도 정원과 하나가 되는 여성길 등 박람회의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모든 연령층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재미 있는 모습들로 구성됐다.

'루미오·통리엣'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순천시청'을 검색한 뒤 채널을 신규 추가하면 선착순 4만 명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30일간 사용 가능하다.

순천시청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게 되면 시정소식, 문화예술행사 등 유용한 순천 소식들을 매주 목요일 규칙적으로 제공받는다.

앞서 2020년과 2021년 출시한 순천시 이모티콘은 이벤트 시작과 동시에 하루 만에 모두 소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첫째 아이도 1080만원 지급

출산장려금 확대... 모든 산모 건강회복비·돌맞이 축하금 등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표방한 고흥군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출산 장려 지원을 확대한다.

고흥군에 따르면 첫째·둘째·셋째아이 출산 시 지급하는 7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1080만원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했던 돌맞이 축하금은 모든 출생아에게 확대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는 '건강 회복비'로 변경된다.

'건강 회복비'는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지역 내 산부인과 활성화와 산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분만 장

소, 소득 정도, 장애 유무에 따라 5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확대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및 출산 산모부터 적용된다.

또 월 30만원씩 지급해왔던 만0~1세 영아 수당은 아이 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모급여로 변경되며, 지원 금액은 만 0세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이다.

고흥군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백일사진 촬영권 ▲쌍둥이 출산 행복 축하금 ▲다자녀가정 우대증발급 ▲보육비 지원 ▲관내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인센티브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자 참여 김장 나눔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여수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21일 산하 위원회인 사회통합협의회 주관으로 여수지역 이민자들과 함께 김장담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천사돌산갓김치의 후원을 받아 열린 이번 행사로 담아진 김치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한 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과 소방서 등에 전달됐다.

사회통합협의회는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법 준수 홍보 및 체류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민간자문봉사단체다.

박낙원 천사돌산갓김치 대표는 "사회통합위원으로 여수지역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선봉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은 "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인 김장을 직접 체험해 보고,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을 전달하는 나눔의 미덕까지 느낄 수 있는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